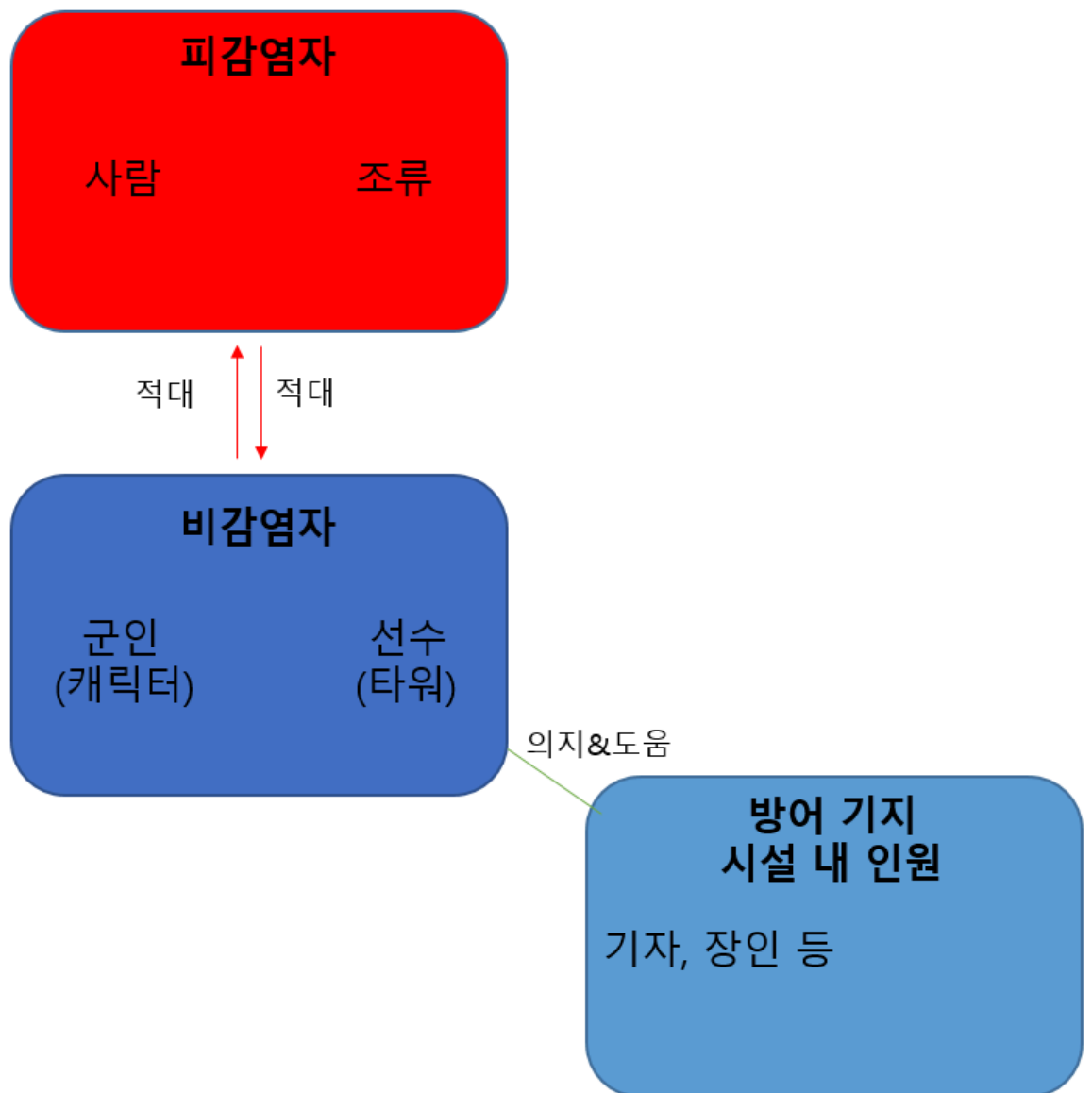


# 두두둥 솔져스 시나리오 및 갈등관계



## S#1 튜토리얼 - 섹터1

‘어두컴컴한 시야 속에서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보이는 공간 속으로 들어온다.  
지금 보고 있는 백색 풍경이 꿈 속인지, 그 전에 온통 까맣던 곳이 꿈 속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누군가 나의 앞으로 오는 것 같다.’

“분대장님 잘 주무셨나요?? 이제 출발하실 시간입니다.”

이 세상이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 망하게 되고 생존자들은 한 곳에 모여 이 방어기지 안에 의존하며 서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햇빛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헬멧까지 쓰고 있는 비감염자들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버텨내는 것이 힘이 들었다. 그래서 피감염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멤버들은 의지를 모았다. 이 방어기지 섹터를 나가 바깥 세상을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남아 있는 사람들의 편안한 삶을 갖기 위해 다같이 나아가기로.

그 중 주축이 되는 군대 안의 분대장의 출전날,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 세상에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자랭킹 1등을 하고 있었던 기자도 도움을 주기로 하여 분대장을 찾아온 것이었다.

바로 앞 쪽까지는 단신으로 다녀와볼만 하다고 생각한 분대장은 몇명의 분대원들만 데리고 섹터로 들어왔다. 섹터 역시 온통 하얀색으로 뒤덮여진 배경이다. 음침한 느낌의 붉은 색 눈을 뿜 까마귀 한 마리가 다가오기 시작한다.

분대장의 산소통에서 산소량이 부족해져 당황한 그 때, 뒤에서 화살이 날아와 까마귀에게 치명상을 입힌다.

“안녕하세요 분대장님. 저는 양궁선수인 ‘구보’입니다.”

인사를 나누는 것도 잠시, 까마귀의 수가 많아 둘만으로는 다 처치를 할 수 없는 그 때, 까마귀 한마리가 날갯짓으로 공격을 했지만 미리 세워둔 방어벽 덕에 까마귀는 방어벽을 공격했다.

‘살았다. 지금이 기회다.’

분대장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조준을 한다.

까마귀를 다 처치하자 여태껏 보지 못한 크기의 또 다른 까마귀 한마리가 나타난다.  
지금까지의 까마귀들 보다 약 2.5배는 커보이는 것 같다.

‘쫓지 말자. 기껏해야 고작 까마귀 한 마리다. 아니 이건 현실 세상이 아니다. 증강 현실 속 작은 몬스터다.’

분대장은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대왕 까마귀에게 총을 쏠 품을 잡는다.

분대장은 결국 대왕 까마귀를 처치해낸다.

## S#2 방어기지

이 상태로는 안된다고 판단한 분대장은 총기를 숙련도를 높이고 연마해야 한다고, 좀 더 자신의 장비에 대해 더 좋은 장비를 만들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때 기자가 한 인물을 데리고 찾아온다.

“저는 세상이 이렇게 변하기 전에 장인으로 유명했습니다. 분대장님이 다녀오시는 동안 여분 무기들과 장비들을 손봐드리고 있겠습니다.”

‘다행이다. 더 강해져 피감염자들에게 위협을 줄 수 있겠다라는 안심이 된다.’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이제 나아가 먼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 저희의 영토를 늘려 나가야 합니다. 스테이지를 차례대로 클리어하여 보상을 받고 영역을 늘려가세요.”

## S#3 섹터2

“섹터2 에는 비둘기 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람들 주위에서 뭐라도 얻으려고 하는 속셈이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비둘기 떼를 처단해야 합니다.”

‘사람을 보고도 피하지 않고 달려드는 비둘기는 까마귀에 비해 멧집이 약하기 때문에 잡기에는 수월하겠지만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물량에 뒤떨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다.’

분대장은 구보의 도움을 받으며 수월하게 잡아 내어 마지막 비둘기를 처치했다고 생각했던 그 때, 대장 비둘기가 나타난다.

‘이 비둘기도 다른 비둘기와는 다르게 덩치가 좀 더 크고 한 쪽 눈에는 상처까지 있구나. 결국 피감염자들도 우리를 지으면 그 우리를 이끌 우두머리가 있다는 건가.’

두번째 겪는 같은 상황에, 적응이 빨라진 분대장은 대장 비둘기도 잡아낸다.

#### **S#4 섹터3**

“섹터2를 점령한 후에 비둘기 무리가 다수 사라져 참새떼들이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놔두다가 섹터 안쪽까지 참새들이 들어와 횡포를 부린다면 위험할 것입니다.”

쉬고 있던 분대장에게 기자가 달려온다. 분대장은 출정할 채비를 마친다.

‘참새는 비둘기와 까마귀에 비해 몸집도 작고 월등히 속도가 빠르다. 하지만 그만큼 체력이 약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마인드컨트롤이 잘 되는 분대장이다.

역시 참새들을 다 잡아내자 기존의 참새들이랑은 다르게 생긴 하얀색 참새가 튀어나온다.

‘그냥 색만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다른 참새들에 비해 멧집이 튼튼하다.’

특이사항 생기지 않고 하얀 참새마저 무찌른다.

‘돌아와보니 소탕에 나가는 자들에게 보급을 준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가서 보급을 받아 필요한 것들을 모아야겠다.’

어린 아이들이 다가와 클로버를 건네준다. 아이들은 웃으며 떠난다.

‘네잎이구나. 행운이라, 행운이 있다면 이 세상을 다시 평화롭게 만들 수 있을까? 저 밝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분대장님을 위해 손을 본 무기와 장비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직 재료가 부족해 이 정도 밖에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분대장은 장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받아 섹터 입구까지 진출해 섹터 입구를 확보할 것을 결심한다.

#### **S#5 섹터 입구**

“피감염체들도 자신들의 동료는 피아식별이 되는건지 일전에 잡아냈던 비둘기와 까마귀가 같이 저희를 버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개체수가 모여 힘을 길러 이 곳을 자리잡기 전에 섹터 입구까지 점령하러 가야겠습니다”

섹터 입구로 들어가자 비둘기와 까마귀들이 달려든다. 흥분을 한 상태라 기존 까마귀와 비둘기보다 처리가 힘들 것 같다.

‘어찌저찌 처리하긴 했지만 저 끔찍한 혼종은 무엇인가. 비둘기의 몸통에 까마귀의 부리와 날개가 섞여 있는 까둘기이다.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서로의 염색체가 섞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어디선가 강력한 물줄기가 날아온다. 뒤를 쳐다보는 분대장과 구보는 뒤를 쳐다본다.

“어? 백환씨!”

구보가 반갑게 인사한다.

“저 분은 저랑 같은 선수촌에 있던 수영선수인 백환씨예요.”

구보가 물줄기를 날린 사람의 정체를 알려준다.

백환은 물총을 개조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물줄기를 쏘는 물총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서있다.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분대장님.”

‘좋아 이 멤버라면 무찌를 수 있을 것 같다. 함내보자.’

분대장은 백환, 구보와 함께 까둘기를 물리친다.

#### **S#6 바깥 섹터**

“섹터 바깥쪽에는 아직 남아있는 비둘기와 참새들이 같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섹터 내에 잔존된 새들을 다 잡아 내어 섹터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비둘기는 더욱 분노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쉴 시간이 없다.’

분대장은 방어 기지 안에서 주변을 살펴본다.

‘저기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든 자들을 위해 내가 나서야한다. 최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라고, 방어 기지에 의존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섹터 바깥쪽에 남아 있는 비둘기와 참새들의 잔당을 모두 처치를 해야 한다. 빠르게 처리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분대장은 비둘기와 참새들의 잔당을 처리하기 위해 바깥 섹터로 나간다.

멤버들과 손발을 맞추며 남아있는 새들을 물리치자, 분대장의 앞에는 비둘기의 몸에 참새의 얼굴을 한 참돌기가 나타났다.

이 역시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서로의 염색체가 섞여 만들어진 혼종으로 보인다.

이 혼종의 참돌기의 공격으로 인해 방어벽이 뚫릴 위기에 처하지만, 멤버들과 협동해 겨우겨우 막아낸다.

‘방어벽을 수리하면서 좀 더 보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 **S#7** 동네 마트

“현재 시설물 내에 소량의 식량과 물품들 밖에 남아 있지 않아, 지금 섹터 밖으로 나가 가장 가까운 마트를 찾아 점령해, 구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섹터 밖으로 나간다면 현재까지 섹터 안에 들어온 까마귀, 비둘기, 참새 세 개체수의 새들이 분대장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기자의 정보 전달은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도 나를 믿어주는 팀원들과 기지 내 도움을 주는 위인들, 모두의 힘으로 세상을 지켜내겠어.’

정말 오랜만에 햇빛을 보는구나. 감회가 새롭다. 오랜만에 보는 세상은 어떤 느낌일까.’

분대장은 정예 인원을 꾸리며 섹터 밖으로 나간다. 섹터 밖 세상은 뭔가 같으면서도 달라보인다. 햇빛을 느끼는 것도 잠시,

‘왜 조그마한 늪지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위화감이 든다. 구보와 백환에게 뭔가 예감이 좋지 않다고 정신 차려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준다.’

들은 대로 비둘기, 까마귀, 참새 들이 차례대로 덤벼온다.

비둘기가 날아오다가 화살에 맞고 픽 쓰러진다.

“조심하세요!”

참새가 빠르게 날아오다가 물총에 맞고 멀리까지 날아간다.

“괜찮으세요?!”

맨날 보던 새들을 다 사살하니 기분이 묘하다. 하지만 저들은 바이러스가 있는 감염체들, 살아 있는 모두를 위해서라면 잡아낼 수 밖에 없다.

새들의 시체를 보며 다시 한번 다짐하는 분대장이다. 그 때, 팔리컨 한마리가 날아와 바닥에 착지한다. 늪지대 였던 덕분에 흙탕물이 사방에 튀긴다.

‘이제 당황하지 않는다. 적이 나타나면 물리칠 뿐이다.’

곁에서 그를 지켜 물총을 쏘주는 수영 선수. 계속해서 치명타를 입혀주는 양궁 선수 등. 분대장은 비상한 두뇌와 뛰어난 통솔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신뢰를 주고 받으며 이 세상을 지켜낼 것이다.